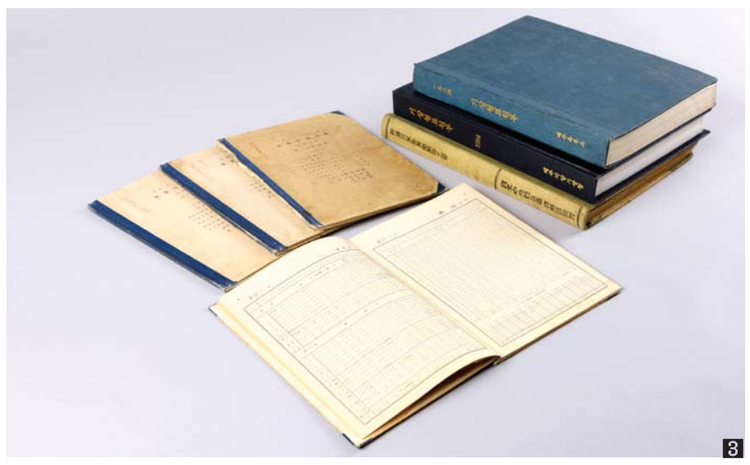
바람으로 태어난 제주, 미리 온 태풍의 고백

국립제주박물관·제주기상청 태풍 주제 특별전 공동 기획
인문·자연과학적 시선으로 태풍의 위력과 순기능 살펴
기상·역사·생활자료 50여점



1 하멜 표류 기록이 들어있는 국가 지정 보물인 17세기 지영록 2 신안선에서 출토된 중국 원나라 14세기 청자 인물형연적 3 제주지방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기상연보 원부.

루사(2001), 매미(2003), 나비(2005), 곤파스(2011), 메아리(2011). 7~10월이 되면 해마다 20~30개가 발생하는 태풍의 이름들이다.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은 더러 가뭄을 물리치고 녹조를 해소하는 등 효자 노릇을 하지만 루사처럼 5조2000억원 가까운 재산피해를 남기고 떠난다.

'태풍의 길목' 제주에서 맹렬한 그 바람을 인문·자연과학적 시선으로 두루 살핀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과 제주지방기상청(청장 권오웅)이 손잡고 마련한 '태풍고백(颱風告白)' 특별전이다. 가상의 태풍 '고백'을 제목으로 태풍이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다.

이달 12일부터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시작된 이 전시는 태풍의 생성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급변하는 기상·기후 변화, 태풍이 빚어낸 제주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태풍이 인간에게 파괴를 일삼아온 기상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현상이고 해양생태계의 순환을 돕는 유익한 면모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태풍을 기록한 역사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역대 태풍, 그것을 품고 때로는 맞서기도 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생활자료 등 50여 점이 전시장에 나왔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태풍 피해는 700건이 넘는다. 그중 제주는 바람의 섬이었다. 조선시대 김정은 이방인의 눈으로 쓴 '제주풍토록'에서 "집을 둘러 돌담을 쳤는데 흙덩어리와 돌을 쌓아 높이가 한 길 정도 되고 위에는 녹각목을 꽂아두었다.… 그러나 돌담이 높고 좁은 것은 이 고장의 풍속이 모두 그러하니,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막기 위함이다"고 했다. 제주사람들은 일찍이 초가 지붕을 낮추고 돌담과 올레를 내어 거센 바람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예측불허의 태풍은 두려움이 대상이었지만 폭풍은 바다를 뒤집어놓으며 풍요로운 해산물을 토해내는 걸 알았기에 옛 사람들은 음력 2월 영등굿을 치렀다.

바람은 새로운 문화를 제주에 부려놓는 역할도 했다. 14세기 태풍으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안선 유물은 우리에게 보물을 안겼다. 17세기 폭풍에 좌초되어 제주에 난파된 네덜란드 사람 하멜 일행은 표류기를 통해 제주, 조선과 바깥 세상을 만나도록 이끌었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근대적인 기상업무가 이루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의 전신인 제주측후소가 세워진 해는 1923년이다. 제주측후소 설립 당시부터 온도, 습도, 풍향 등을 수기로 기록한 '기상연보 원부'가 이번에 처음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전시에는 제주의 바람과 태풍을 소재로 제작된 현대미술 작품도 놓였다. 공모에 뽑힌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대형 영상물도 볼 수 있다. 전시는 7월 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20-810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농부 시인' 고병용 시집 발간

'농부 시인'인 제주 고병용 시인이 일곱 번째 시집 '가을바람이 들려주는 풍금 소리'(도서출판 천우)를 냈다.

시인은 일기를 작성하듯 살아가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시를 쓰려 한다. 시편들엔 시적 화자가 더덕밭에서 바라본 일상들이 흩어져 있다. '풀꽃을 항상 봐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운 꽃도 피웁니다'란 '풀꽃'에 시인의 나날이 비쳐든다. '뚜벅뚜벅 걸어서/ 산에 가 앉으면// 자연 앞에/ 눈물 보이지 말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토종 감나무')는 대목에 이르면 먼저 간 딸을 애써 잊으려는 시인의 마음이 읽힌다.

우도 연가 오창래 첫 시조집

우도에서 태어난 오창래 시인이 고향에 바치는 연가가 흐르는 첫 시조집을 냈다. 다층에서 펴낸 '국자로 긁다'이다.

제주 동쪽 끝에 있는 섬 우도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시편들이 많은 만큼 구절구절 파도가 친다. 팽목항을 맴도는 울음('떠도는 항구')으로 열리는 시집 곳곳에 결핍이 자리잡았다. 그리운 것들은 이미 다 떠나간 버릴 것일까. 그때, 그 웃음들 너무 보고 싶다는 시인은 '만선의 깃발처럼/ 물 건너온 육지 발길들/ 태 사른 그 옛집은 무사한지 모르겠다/ 검멀레 날아간 살점 민박들로 채워졌다'('우도 일출')고 노래하고 있다.

정복언 시집 '사유의 변곡점'

교직에 몸담았던 정복언 시인이 첫 시집 '사유의 변곡점'(정은출판)을 출간했다.

2016년 시인으로 먼저 문단에 나왔지만 앞서 수필집을 묶었던 시인은 이 시집을 낳기까지 고통을 털어놓는다. "그저 바라만 볼 걸 무엇 하려 침묵을 헤집었을까." 그럼에도 시인은 몸통 부식된 고목에서 틔우는 싹을 보며 힘을 냈다. '자연의 계율을 따라/ 뛰어내릴 수 없는 생애/ 허공에서 흔들리며/ 해도 담고 달도 담고/ 비바람도 껴안으며/ 한 생애 무르익어/ 곳곳을 밝힌/ 노란 등불, 저 눈부심'이란 '귤'처럼 시인은 시로 마주한 사유의 변곡점을 나누려 한다.

송일만씨 '어머니의 루이비통'

제주를 떠나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일본을 거쳐 부산, 서울에서 근무했던 송일만씨가 에세이집 '어머니의 루이비통'(맑은샘)을 냈다.

'한평생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의지해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헌정한 이 책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인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화려한 보석은 아니지만 저마다 가슴에 꺼지지 않는 '배롱배롱한' 빛으로 남아 있던 제주가 급변하고 있어서다. "조금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저자는 제주방언으로 소제목을 단 맨드글락, 호끄멍헌&몬트글락, 곱드글락, 배롱배롱, 코시롱헌, 뎅기당 보난 등 6장에 걸쳐 그 바람을 풀어썼다.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0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ᄀᆞᆯ멘. "ᄋᆞ멩이야- 는 집이만 이시난ᄀᆞ깝ᄒᆞ여실 거여게."
ᄋᆞ**멩이** ᄀᆞᆯ멘. "예게, 경ᄒᆞ주만 고팡이 구석 구석 몬독이영 하간 어지렁ᄒᆞ거 ᄆᆞ딱 ᄀᆞᆯᄒᆞ게 ᄒᆞ멍 ᄌᆞ미지게 잘 지네엾수다."
하르바지 ᄀᆞᆯ멘. "오게, 우리 ᄋᆞ멩이가 ᄇᆞ지런ᄒᆞ난 ᄉᆞ망이여게. 저 웃드르 사는 돌셍이 알아지지? 가이가 하도 히여뜩 ᄒᆞᆫ 춤 추멍 이 ᄆᆞ실 저 ᄆᆞ실 돌아뎅겨가난 가이 어멍 아방이 막 ᄆᆞ심 아판 ᄒᆞ염서라.
ᄋᆞ**멩이** ᄀᆞᆯ멘. "히여뜩ᄒᆞᆫ 춤마씀?
하르바지 ᄀᆞᆯ멘. "ᄋᆞ게-, 경ᄒᆞᆫ디 들어보난 ᄆᆞ실 사름덜 심심ᄒᆞ염신가ᄒᆞ연 가달 춤 추멍 웃지젠 경ᄒᆞ엿젠 ᄒᆞ여라."

*** 제주어 풀이**

*ᄀᆞ깝ᄒᆞ다(ᄀᆞ깝ᄒᆞ다) : <그림>갑갑하다. 답답하다.
*몬독(ᄆᆞᆫ독, ᄆᆞᆫ지레기, 몬지, 몬지레기) : <이름>이것저것을 쓸어모은 쓰레기나 티끌. 먼지와 뒤섞인 너저분한 지푸라기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
*웃드르(난산, 산촌, 중산간) : <이름>바닷가와 가까운 일주도로와 멀리 떨어져 한라산 쪽에 가까운 지방. 중산간 지방.
*히여뜩ᄒᆞ다(혀뜩ᄒᆞ다, 히어뜩ᄒᆞ다) : <그림>잠깐 정신이 핑 돌아 어지럽고 몽롱하다. 이것저것이 뒤섞여 어지럽다.
*가달 : <이름>'가닥'과 같은 뜻인 듯하나,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나무의 벌어진 가지. 옷의 가랑이 따위를 이르는 말로 쓰임.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4·3과 5·18의 연대… '제주작가' 봄호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내는 계간 '제주작가' 2020년 봄호(68호)는 제주4·3의 외연 확장을 위한 광주5·18민주화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4·3 제주를 넘다' 특집이 그것이다.

이 특집에는 김동현 평론가의 '광주항쟁 40주년, 제주항쟁 72주년 소설가 임철우를 만나다'와 백가윤(사)제주다크투어 대표의 '제주4·3을 청년 세대와 함께 나누는 법' 두 편의 글이 실렸다. 4·3을 다룬 소설을 발표했던 임철우 작가는 "결국 4·3이나 5·18이나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느냐"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여전히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고, 연대기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지금의 고통, 현실의 모순과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번 호는 또한 기획연재 '제주, '환상'을 겨누다'에서 제주개발사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돌아본 조중연 소설가의 '욕망의 섬, 에리지크톤의 반격'을 실었다. 공감과 연대, 단동통신, 회원 작품도 볼 수 있다. 진선희기자